

불자 세상보기



진명 스님
前 조계종 문화부장

계속된 중국발 미세먼지의 유입 여파로 전국이 며칠째 희뿌연 오염물질로 뒤덮혀 건강한 이들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요즘이다. 이웃 나라 중국의 환경오염의 결과를 우리가 재앙수준의 체험으로 공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적인 우환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심각한 가계경제 사정 등으로 우울해진 마음은 아무리 마스크에서 새해가 갑오(甲午)년이고 푸른 말의 해라고 힘과 생동감에 대해 떠들어도 도통 즐겁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데 며칠 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에서 모금액이 1995년 시작된 이후 최고 모금액이라는 방송을 접하고 보니 내외적인 우울감이 삼시간에 해소되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지난해 11월20일 모금이 시작 된지 55일 만에 100도를 넘어 112도를 넘어 사랑의 온도탑은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 중이다.

특히 모금의 내용적인 면은 더욱 감동적이다. 올해 목표액이 3100억 원 이었고 31억 1천만원이 모금되었을 때 마다 100도에서 1도씩 올라가는데 무려 112도로 목표액을 초과했으며 개인기부자들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개인기부자가 구두 수선공, 폐지를 파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부부 등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형편임에도 도리어 기부에 동참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의 기부는 교육과 소득의 심각한 양극화와 물질이 인생의 모두가 되어 버린 듯 한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파폐해진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흡사한 얘기가 전해진다. 이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우경> '빈년난타품'을 보면, 난타라는 여인이 등장한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박하면서 살던 난타는 어느 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구걸을 거듭하다 기름을 사서 등 공양을 올렸다. 난타 여인은 "저는 지금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작은 등불 하나만을 부처님께 공양하

다. 그러나 이 등불은 저의 큰 재산을 바치는 것이오며, 따라서 저의 마음까지도 모두 바치는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이인연 공덕으로 저도 내생에 지혜광명을 얻어 일체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없애게 하여 지이다"라고 간절한 발원을 하고 도량을 떠났다. 밤이 지나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지만, 난타 여인이 공양한 등만이 홀로 불을 밝혔다. 부처님 제자인 목련존자가 날이 밝아 불을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 않았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사해(四海)의 물과 산 바람으로도 끌 수 없다"며 "일체 중생을 두루 건지려고 큰마음을 낸 사람이 보시한 물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절 살림이 어려웠던 시절, 객승이 한사람 더 오게 되면 각자 발우에서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밥을 덜어내 한 사람 분량의 밥이 더 생겨지도록 하는 가반(加飯)제도가 있었는데 이 또한 고통을 분담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는 아직도 연말연시만 되면 멀리 거리가 갈라진 '구세군 배비' 속으로 모여드는 온정의 손길과 사회 지도층인 대기업 총수들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도덕적 의무 이행만을 바

라고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모두가 가난한 여인 난타처럼 마음을 담은 작은 보시로 세상의 어떤 등보다 밝고 아름다운 온정의 등을 밝힐 수 있고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데 말이다. 오늘날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은 무명씨들의 크고 작은 손길들이 관세음보살의 천수로 화현하여 큰 기쁨을 쌓아 가고 있어 아무리 환경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가도 마음 한 구석 봄바람처럼 기분 좋은 공존공생의 희망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랑의 온도탑을 외면하지 않았던 이웃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관세음의 가피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천수가 되고 천안이 되어보자.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 마음의 사랑의 온도 몇 도입니까

社說

한국불교, 신도시 포교에 진력 하자

한국불교 주요 종단인 조계종과 천태종이 세종시에 사찰과 전승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신도시에 조계종 사찰을 건립하고 총무원 본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1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천태종 사찰인 대전 유성 광수사 옆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었다. 현재 조계종이 준비하고 있는 사찰은 2012년 서울 일선 사찰이 소유한 세종시 종교 용지를 양도 받은 것으로 부지 선정에 있어 1순위를 배정받은 것이다. 직장직능단체 중 가장 주요한 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행정 수도권 만큼 중앙종무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조계종은 향후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찰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

기도 했다. 천태종은 2018년까지 대전 유성 광수사 옆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하고 국제포교 등 총무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실제 도정 스님은 조계종과 태고종, 진각종 등의 전승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사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 권역은 향후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중 세종시는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이전하는 곳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만큼 법률과 자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 신도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포교에 나서야 한다. 서울·경기나 신도시 개발 지역 종교용지에 불교는 거의 없다. 대부분 공개입찰로 진행돼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개신교회에서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신도시 포교,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성년 수계법회는 대학생 포교 새 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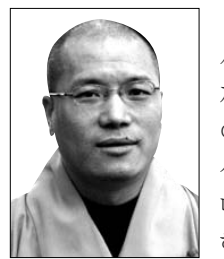
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가 올해부터 대학생들에게 성년 수계법회를 도입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신들의 신행활동과 학술교류 등을 주축으로 활동하던 교수불자들이 이제 제자들의 신행활동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다. 교불련에서 추진하는 성년의날 수계식은 발렌타인데이와 같이 현재 대학가의 기념일로 자리잡은 성년의날을 맞아 신세대들을 포교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상중이다. 2009년부터 제13~15대 교불련 회장을 맡고 있는 최용춘 회장의 이같은 신년 계획은 가득이나 위축되고 있는 대학생 포교의 숨통을 트여줄 새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은 매년 줄어든다. 불교가 노쇠해 가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그래서 불교가 젊어지려면 이제 법회도 젊은 사람들을 참여

시키기 위해 재미있게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를들면 선시낭송회, 명상기도회 등 명칭부터 내용까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대불련 50주년 세미나에서도 밝혔듯 결국 대학생 불자들이 사회에 나가 교불련, 병불련, 공불련 등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학생 불자조직 활성화는 한국불교 포교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되는 계층 포교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 활성화를 위해 지도교수들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불자 교수들이 선배로서 학생들 앞에 적극적인 신행활동도 모범적으로 전개하고 제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때 우리 불교의 위상도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자. 이렇게 된다면 바로 지성인들인 대학생들이 불제자의 길로 들어서려는 문턱이 훨씬 낮아질 것이다.

발언대
주요 종단 신년기자회견

한국 제2행정수도인 세종시에 주요 종단들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에 사찰을 건립하고 총무원 본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 스님도 대전 유성구 광수사 옆 부지에 천태문화전승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내었다. 주요 종단들의 세종시 진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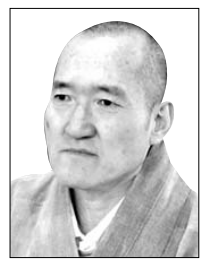
세종시 분소는 시대 흐름



허운 스님
조계종 신도시 총책특보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신도시 포교가 첫 번째 목적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교회가 40여 곳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 중심지인 세종시에도 여법한 종단의 공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조계종이 세종시에 지어질 사찰에 총무원 본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특수층 포교 △대정부 총무행정 원활화 등의 이유가 있다. 세종시가 정부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종단 총무원이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고, 지역 교구본사인 마곡사에게 일임했을 것이다. 물론 그 기초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충청지역권의 포교는 지금까지 교구본사인 마곡사가 맡고,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공무원 직장직능법회 활성화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밝힌 것처럼 세종시와 정부기관을 찾는 외국인인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종단적인 신도시 포교의 롤모델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에 건립될 사찰은 신도시 포교의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 사찰 면밀한 준비를



범응 스님
불교생명윤리학회 대표

세종시에 사찰을 건립해 총무원 본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전략적 포교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세종시로 가는 정부 부처와 기관은 모두 36곳이다. 총리실을 물론 연방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부처와 기관 12곳이 전한다.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 18곳이 동지를 옮겼으며, 2014년에는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6곳이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업무처를 이동한다. 서울시에는 입법부, 사법부, 외교부 등 5개 부처만 남는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세종시를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이 사는 자족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에 사찰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종교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충청 권역에 존재하는 만큼 대정부 총무행정을 위한 창구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면밀한 준비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전에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폭 넓게 듣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도시 포교, 미룰 일 아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세종시는 행정 수도이며 서울의 행정 기관 대부분이 내려간다. 대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 밀집 지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런 세종시에 새로운 포교 도량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리어 하나가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요소 요소에 사찰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도심형 사찰을 건립해 대전-유성-계룡시-세종 행정신도시-청주시로 이어지는 충남권 포교 라인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근 교구 본사인 마곡사 기능을 확대시켜야 한다. 일부에서 지적한 대로 이와 더불어 서울과 수도권, 인근 신도시에 대한 포교의 교배도 놓쳐서는 안되며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직할교구 세분화는 시급하다. 수도권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직할 교구 본사라고 볼 수 있는 조계사는 단위 사찰로의 역할은 해도 본사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세분화를 통한 역할 분배와 집중으로 수도권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포교는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FAX (02)737-0698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광고국 (02)2004-8213-6 쇼핑물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FAX (02)737-0696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과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